

1 술래잡기

놀이 목표

- 민첩성과 순발력을 기른다.
- 신체 부위와 공간을 인지한다.
- 근지구력을 기른다.
-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회성을 기른다.

준비물

- 폼볼 유아 5명에 1개(부드러운 스펀지로 만든 지름 18cm 공)
- 콘 4개(높이 25cm의 플라스틱 원뿔)

안전 수칙

- 공을 던지지 않도록 한다(특히 얼굴을 향해서).
- 얼음을 만들기 위해 칠 때도 얼굴은 치지 않도록 한다.
- 유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앞을 보고 걷거나 달리게 한다.
- 서로 좋아하는 유아들만 번갈아가면서 활동하지 않게 한다.

유의 사항

- 천천히 걷는 활동부터 시작한다.
- 달리기나 다른 이동운동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 반드시 걷기를 하여 감정이 들뜨지 않게 한다.
- 얼음인 유아는 움직이지 않게 한다.
- 이동운동 방법에 따라 음악을 틀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1 술래잡기



● 놀이 확장

1단계

- 공간의 크기를 넓게 한다.
- 걸으면서 술래잡기를 한다.

2단계

- 공간을 좁게 한다.
- 활동 1 : 술래에게 치인 유아는 치인 신체 부위의 이름을 2번 말하게 한다.
- 다양한 이동운동 방법(달리기, 한 발로 뛰기, 두 발 모아 뛰기)으로 술래잡기를 한다.

● 놀이 평가

- 술래는 유아들을 신속하게 얼음으로 만드는가?
- 얼음이 안 되기 위하여 잘 피해 다니는가?
- 얼음인 유아를 잘 도와주는가?
- 지정된 이동운동 방법을 잘 따라 하는가?
- 규칙을 잘 지키는가?

● 놀이 방법

1. 가로 6m, 세로 6m 정도의 활동공간을 만든다.
2. 콘 4개로 각 꼭짓점을 만들어 활동공간을 표시한다.
3. 처음 시작할 때는 희망하는 유아를 술래로 정한다.
4. 술래는 폼볼(부드러운 스펀지로 만든 지름 18cm의 공)을 들고 활동한다.
5. 술래의 숫자는 유아 5명에 술래 1명의 비율로 정한다.
6. 활동공간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놀이 1 : 신체부위 술래잡기

- 술래는 폼볼로 술래가 아닌 유아의 신체를 친다.
- 술래가 아닌 유아는 술래가 치지 못하게 도망 다닌다.
- 유아가 술래에게 처음 치였을 때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치인 신체 부위를 잡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닌다.
- 같은 유아가 술래에게 두 번째 치였으면, 오른손으로는 처음 치인 신체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는 두 번째 치인 신체 부위를 잡고 계속 도망을 다닌다.
- 세 번째 치이면 술래와 역할을 바꾼다.
- 술래가 바뀌면 모든 유아의 손은 자유롭게 된다.
- 술래는 폼볼을 던지지 않는다.
- 술래는 같은 유아를 연속 2번 이상 치지 못하게 한다.

놀이 2 : 얼음터널 술래잡기

- 술래는 유아들을 폼볼로 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얼음터널로 만든다.
- 얼음터널은 술래에게 치인 유아가 그 자리에서 양발은 아껴 너비로 벌리고, 양팔을 옆으로 들어 움직이지 못한다.
- 얼음터널을 녹이는 방법은 얼음터널이 아닌 유아가 술래를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얼음터널의 양발 사이로 기어서 통과하면 된다.
- 유아가 얼음터널을 녹이기 위해 양발 사이로 통과할 때는 술래가 치지를 못한다.
- 모든 유아가 얼음터널이 되면 술래를 새로 뽑는다.
- 만일 2분 이내에 모든 유아가 얼음터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을 중단하고 술래를 새로 정한다.

놀이 3 : 하이파이브 술래잡기

- 술래는 폼볼로 쳐서 유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얼음으로 만든다.
- 술래의 폼볼에 치인 유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양팔을 하늘 위로 높이 들어 양쪽 귀에 대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한다.
-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움직이는 유아가 얼음인 유아 앞에서 점프하여 양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 얼음이 녹는다.
- 유아가 얼음을 풀어주기 위해 하이파이브를 하고자 할 때에도 술래에게 치이면 얼음이 된다.
- 반드시 양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해야 얼음이 풀린다.
- 모든 유아가 얼음이 되면 술래를 새로 뽑는다.
- 만일 2분 이내에 모든 유아가 얼음이 되지 않으면, 활동을 중단하고 술래를 새로 정한다.